

인공지능(AI) 항공보안기술, 국민이 직접 체험한다

- 「2026 항공보안주간」 7월 8일부터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 등에서 개최
- 국산 항공보안 장비 체험, 항공보안 문화 확산 캠페인, 항공보안 채용설명회 등 풍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국가정보원, 경찰청과 함께 7월 8일부터 10일 까지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인천, 김포 등 전국 공항에서 ‘2026 항공보안주간’을 개최한다.

* (참여기관) 국토교통부·국가정보원·경찰청(공동주최), 한국공항공사·인천국제공항공사·한국교통안전공단·항공보안협회·항공보안학회(공동주관), 한국항공협회(후원) 등

-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보안주간은 ‘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- AI 기반 첨단기술과 국민참여로 여는 안전한 하늘길’이라는 주제로 열린다.
- 항공보안 기술의 미래를 공유하고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하며 항공보안업계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▲ 국민 참여·체험·홍보 ▲ 항공보안 종사자 경연 ▲ 전문가 학술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다.

< 1. 개막행사 >

- 7월 8일 오전 10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관계기관, 항공업계, 항공보안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로 「2026 항공보안주간」의 시작을 알린다.
- 국회에서도 맹성규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,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, 김희정 의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.

- 미국 항공보안청(TSA)에서도 한-미 항공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강화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.
- 이어 박재완 한국항공보안협회장의 기조연설과 항공보안 근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.
- 개막식 이후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항공보안장비 전시·체험공간과 항공보안 취업설명회 부스를 둘러본 뒤, 김포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찾아 근무 중인 보안검색요원을 격려할 예정이다.

< 2. 세부 프로그램 >

- (국민 참여·체험·홍보 프로그램) 차세대 'K-항공보안'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공보안장비 전시·체험 프로그램, 항공보안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항공보안 직종에 대한 취업설명회 등을 운영한다.
- 7월 8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공지능(AI) 기반 양방향 X선 검색장비를 비롯해,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탐지레이더 등 8개 업체·기관에서 총 14종의 첨단 항공보안 장비를 전시할 계획이다.
 - 또한, 한국공항공사는 폭발물을 처리할 때 착용하는 방폭복·방폭헬멧과 보안검색장비인 핸드스캐너 등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하고 사용해볼 수 있는 '항공보안장비 체험존'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7월 9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국민이 직접 기획·제작한 항공보안 홍보 콘텐츠에 대한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고, 수상작들은 동 박물관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.
- 아울러, 항공보안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도 전국 공항에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.

-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“오늘도 무사 GO” 캠페인을 운영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, 보안검색 협조 요령, 불법방해행위 예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공보안 수칙을 알릴 예정이고, 한국공항공사는 14개 공항에서 항공보안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어 보안검색요원, 항공경비요원 등 항공보안 관련 분야 직무 소개와 1:1 취업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미래 항공보안 인재의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.
- (전문가 학술교류 프로그램)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우리 항공보안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·포럼도 함께 열린다.
- 7월 8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항공보안 세미나가 개최되고,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정책 동향, 선진 공항의 보안기술 활용사례, AI 기반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 변화와 국제협력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- 7월 9일에는, 항공보안협회가 주관하는 미래항공보안포럼이 개최되어 안티드론, AI 등 첨단기술 융합 보안검색장비 고도화, 항공 보안문화 확산 등 미래 항공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.
- (보안종사자 경연 프로그램) 항공보안 요원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고, 자긍심을 다지는 경연 프로그램도 개최된다.
- 7월 8일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는 사격왕 선발대회가 개최된다. 이를 통해, 항공보안 종사자와 공항경비 관련 인력의 현장 대응역량을 점검하고, 비상상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7월 10일 인천공항 항공교육원에서는 항공보안경진대회가 열린다. 보안검색, 화물검색, 항공경비 등 현장 업무역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.

-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이번 2026 항공보안주간은 우리나라 항공보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자, 국민이 항공보안의 중요성과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하면서,
- “정부는 국산 첨단 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, 항공보안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공항공정서관 항공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세희 (044-201-4232)
		담당자	서기관	신영우 (044-201-4233)
			주무관	전현준 (044-201-4235)



□ 추진 목적

- '25년 최초로 「항공보안주간」을 지정·운영하여 관계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항공보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의 계기 마련
- 항공 불법위법행위 고도화·다양화에 대응하여 범국가적 보안역량 강화, 정책 홍보, 보안문화 확산을 위한 정례적 행사 운영 필요

□ 2026 항공보안주간 개요

- **(기간/장소)** '26.7.8(수) ~ 7.10(금) / 국립항공박물관 및 전국 공항
- **(주제)**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
(AI 기반 첨단기술과 국민참여로 여는 안전한 하늘길)
- **(참여기관)** 국토부·국정원·경찰청 (공동주최), 한국·인천공항공사·한국교통안전공단·항공보안협회·학회 (공동주관), 한국항공협회 (후원) 등
- **(프로그램)** 일반국민 참여·홍보, 항공보안 종사자 경연, 전문가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

< 주요 프로그램 개요 >

분류	연번	행사명	일시/장소	주관기관
	1	개막식	7.8 / 항공박물관	한국공항공사
국민 참여· 홍보	2	국산 항공보안 장비 전시	7.8 / 항공박물관	항공보안협회
	3	항공보안장비 체험	7.8 / 항공박물관	한국공항공사
	4	항공보안 취업설명회	7.8~10 / 항공박물관	한국항공협회
	5	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	7.9 / 항공박물관	항공보안협회
	6	오늘도 무사GO(캠페인)	7.8~10 / 인천공항	한국교통안전공단
	7	항공보안문화 확산 캠페인	7.8~10 / 전국공항	한국공항공사 등
	학술 교류	8	글로벌 항공보안 세미나	7.8 / 국립항공박물관
9		미래항공보안포럼	7.9 / 국립항공박물관	항공보안협회
종사자 경연	10	항공보안 경진대회	7.10 / 항공교육원	인천국제공항공사
	11	사격왕 선발대회	7.8 / 인천공항 실내사격장	항공보안협회
	12	폐막식	7.10 / 항공교육원	인천국제공항공사